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8호 [무게 제23150호] 주체99(2010)년 7월 17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결기모임이 경공업, 농업, 린관부문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진행되었다.

모임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전달되고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정전 65돛이 되는 뜻깊은 해에 소집되는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격정과 화려했던 날들이 떠오르고 하면서 그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경공업과 농업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단란한 경제실무적문제라 아니라 우리 당의 인민정치철학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경공업, 농업, 린관부문 단위들에서 결기모임 진행

발양시키는 중요한 정치적문제이다.》

평양, 개성방직공장 종업원 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경공업혁명방향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든든히 다져진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자기 지닌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천제사공장, 박천전직공장, 강계은하복공장, 사리원대성타올공장 종업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당을 따라 뜻깊이 걸어온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복을 안겨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면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중속에 깊이 체득시

켜며 생산자들의 정신크를 총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조직정기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투장마다에 혁명적분위기가 차넘치게 하며 새 기준, 새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양기료품공장 종업원들은 결기모임에서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생산공정의 CNC화를 다그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높여 성능 높은 직기들과 기료품생산을 늘임으로써 나라의 방직공업발전에 이바지할 결의를 토로하였다.

신의주신발공장 종업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어린 영광의 단위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든 갖가지 신발생산을 늘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백송종합식당공장, 문천식료공장 종업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을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의 기술개발, 제품개발능력을 높여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는 갖가지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모두가 당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함흥염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 원산유리병공장, 회천일용품생산협동조합 종업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결사투쟁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용품의 가치수를 끊임없이 확대하며 그 질을 보다 개선하여 커다란 로력적신물을 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에 단호히 응하며,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고 기술발전을 앞세우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리원시 미곡, 재령군 삼지강, 통천군 신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농장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당대표자회를 높은 열풍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면한 농사일을 끈지게 하며 농업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살포시 받들어나감으로써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빛내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평원군 원화, 만포시 고산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도 결기모임을 가지고 결사투쟁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영예를 간직하고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것을 다짐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동전선을 지켜서 책임감을 안고 주체논법의 요구대로 작기작자, 적지작자의 원칙을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농법들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신천군 우산, 무산군 문암, 천내군 통탄협동농장 농장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수확물종들을 받아들이고 두벌농사면적을 계속 늘려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안변군 천삼, 명천군 황진협동농장 농장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올해농사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중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농장원들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는데 맞게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영농조작과 지휘를 결렬있게 하여 모두가 농작물비배관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하며 농장마다를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면시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성시 평화, 묵산군 원교협동농장과 대동단군 신흥농장 농장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

은 알곡생산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면서 농업혁명방향을 틀어쥐고 올해농사에서 전환을 일으켜 선군시대 농업근로자로서의 책임을 다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농장포전은 나의 포진이다!》는 구호밑에 사회주의대지에 깨끗한 땅과 성실한 애국의 땅을 바치며 모든 농사일을 자체의 힘으로 알뜰하고 간지게 하여 당이 바라는 대로 농장마다에서 풍만한 결실을 마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금성트락트르공장, 원산트락트르부속공장 종업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잘함으로써 농촌경리의 기적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물적인 여러가지 농기계를 과부속출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 농촌에서 강한 로력문제를 풀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조선에서 황주군농기계작업소 종업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각적인 총공세가 드세차게 벌어지는데 맞게 농업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작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기계의 수리정비를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통성, 하남담공장 종업원결기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대표자회를 자랑한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을 안고 즐거운 투쟁을 벌려 당의 은진속에 마련된 공장이 큰 은이 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먹이보장에 힘을 넣어 맡겨진 고기와 알달산계획을 넘쳐 수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결기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계속 전진

인민소비품생산으로 추동하는 당조직정치사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일부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당정전 65돛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자 경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시안의 경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생산자속에 깊이 들어가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당의 뜻을 널리 해설전전하는 화선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한편 당조직

들에서는 일군들이 생산현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생산자들의 정신크를 총발동하도록 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단위들에서 더욱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평양방직공장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직말씀을 가슴깊이 새겨주어 생산과 기술혁신에서 일대 양양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공장 기술자들은 직기의 기술개조와 연색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성속평양제사공장 당조직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설비들의 기술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 여러가지 절린 고리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고있다.

평양양말공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경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제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질을 높이고 하기 위한 화선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함흥제사공장, 함흥모방직공장을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경공업부문 당조직들에서도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화선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끝낸 함흥제사공장에서는 당정전 기념일준비로 연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데로 정치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고있다.

도안의 시, 군경공업공장들에서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지방의 원료와 자재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원산유리병공장, 원산염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비롯

한 강원도안의 경공업공장 당조직들에서도 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조와 제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신발공업부문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해산신발공장 당조직에서는 공장의 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 신발의 질을 더욱 개선하며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함으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보통강, 강서, 류원, 신의주, 사리원신발공장 당조직, 순천, 홍남구두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현행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이백천 명정들을 빨리 보충하고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화장품공장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

당조직에서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별향기》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화선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 당조직에서도 제품의 가치수와 질을 높이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정주시, 의주군, 통천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안의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지방의 원료와 자재로 수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있다.

경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1차소비품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값높고 질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흥



당대표자회를 높은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사리원전직공장에서 — 김정명 찍음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경공업혁명의 불길속에 이룩한 성과

평안북도 경공업공장들에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시 경공업부문에 내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여 그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입니다.》

도안의 경공업공장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대표자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모두가 위훈창조자의 영예를 떨치게 하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방직공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남면전직공장에서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양복본, 모시를 비롯한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해내고있으며 상반년 신발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신의주신발공장에서는 부단치는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극복해나가면서 신발생산을 높이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상반년계획을 109%로 넘쳐낸 신의주방직공장에서서는 준비적장, 프레스직장, 소형1직장, 소형3직장을 만부하로 돌려 여러가지 범람그릇들을 많이 생산해내고있다.

박천전직공장에서서는 생산자대중의 정신크를 힘있게 발휘시켜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데 이어 증산성과를

특기기자 김기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크는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어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띠어라 합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넘고있는 속에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적으로 상반년간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혁신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련합기업소적인 생산량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금광생산에서 골전에 힘을 넣어 전망이 좋은 채굴장들을 마련하고 련속 돌격전을 벌이며 매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고경천채광소대 광부들은 매일 계획보다 2배이상의 광석을 생산하며 진군속도를 높여 상반년간에 연간계획을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검덕광의 일군들과 광부들도 혁명적근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

하여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매일 계획을 120%이상 해체하고있다.

심부지구에서 증산의 새 소식이 련일 전해질 때 상부 지구에서도 이에 뒤질새라 광물생산을 높이고있다.

남풍광산, 우학광산의 광부들은 전망이 좋은 채굴장들을 전개해 련속전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맡겨진 광물생산계획을 매일 넘쳐수행하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련합기업소적으로 금광광산, 남풍광산, 경진실업소, 보수광을 비롯한 12개의 광산, 갱, 직장들과 70여개의 소대, 작업반들이 상반년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광석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2선광직장과 제3선광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를 잘하여 광석처리량을 계속 높이고있다. 특히 제3선광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마광계통의 개건공사를 벌리는 데바쁜 속에서도 선광실수율을 더욱 높이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다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련합기업소일군들과 광부들의 투쟁에 의하여 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사인 본사기자 리명남



평양방직공장에서 7월 16일현재 80여명의 연간 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평양방직공장에서 많은 연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된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은 실적으로 받들어가려는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같은 총성의 표시로 된다.

현재는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저지도하신 1돛을 맞

으며 공장동계급은 전제대로는 생산적양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그들가운데는 세 세대의 로력혁신자다운 직포공 문강순, 리명순, 정방공 한철옥, 선우유동무들도 있으며 지난 3월에 연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7월 30일까지 2년분생산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고 있는 조방공 리은경, 유숙영 등우들도 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시대적책임감을 간직하고 로력영웅들인 직포공 전숙화, 정방공 김복실, 직장장 리명동우들은 천리마

시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세 세대 혁신자들을 더 큰 위훈으로 떠밀어주고있다. 전세대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직포공 안충실, 김현항동우들을 비롯한 72명의 여성로동자들은 다기대운을 힘있게 벌려 6월 30일까지 연간계획을 완수하고있다.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록,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지금 공장에서선 년간계획 완수자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조향선

선군시대 예술선동활동의 본보기, 예술창조의 훌륭한 경험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보고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는 항일유격대식예술선동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고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인민군대의 손꼽히는 예술선전대들중의 하나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최근에 진행된 예술선전대공연에서 제일 훌륭한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

생활의 예술이 마음의 문을 연다

예술선전대는 사상적으로는 당과 편결되어있고 생활적으로는 군중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있는 화신나팔수와의 같다. 또한 전문예술단체와 군중예술소조사에서 사회의 진보적예술발전을 추동하는 교양사적역할을 하고있다. 당과 대중을 편결시키는 《조선동로》, 나라의 진보적예술발전의 힘있는 추동력의 하나인 예술선전대활동의 중요성으로 하여 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부문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셨다.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무기이며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인 예술선전대와 기동예술선동대는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정책적인 지도밑에 최근년간에 사상예술소조사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온 나라를 돌며 여행하는 세련된 경정열풍속에서 여는 인민군대의 여러 예술선전대와 사회의 공장, 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를 이 저차마다 두루를 나타내며 이어 오날 또다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가 새로운 영광의 단상에 우뚝 올라왔다.

한차례의 《예술열병식》과도 같은 커다란 감흥으로 관중을 경탄시킨 이번 공연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하고 비약하는 인민군대 예술선전대활동의 질적수준을 보여주고 대고조의 열풍속에서 더욱더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 온 나라의 군중예술활동에 박차를 가해준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사랑하는 예술이 가장 고상한 예술이며 진정한 예술이다.》

예술선전대공연이 진실로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감화시키는 성공한 공연으로 되지만 무엇보다도 작품들이 좋아야 한다. 무대에서의 《명작》이 좋아야 아니라 대중이 자기 생활의 진실한 《토막》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들고나올 때 《북대포》의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될수 있다.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은 이전의 예술선전대공연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흥으로 관중을 경탄시켰다.

사람들은 흔히 인민군대 예술선전대공연이라고 하면 대렬행진처럼 직박한 노래 종류이나 특관취듯 강렬하고 충격적인 선동작품을 연상하곤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그러한 묘상을 완전히 뒤집어엎었다. 직박하고 폐기있으면서 소 생활도 웃음도 눈물도 있는 공연, 구수하고 통속적이면서도 지성도가 높고 수준이 있는 공연이었다.

머우기 화살소품들은 관중의 특별한 절찬을 받았다. 다른 작품들도 물론 그러하지만 특히 선동극 《같이 갑시다》는 생활도 있고 웃음과 눈물도 있는 진짜짜 예술선동작품이란 어떤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준 인상깊은 극작품이다.

서로 바쁜 얼굴을 채우치던 3명의 군관, 병사들이 농장의 자동차가 울린 달빛의 종자감자때문에 차를 멈춰서서 초기복 무사관순견사를 만나느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작품은 뒤를 가늠할수 없는 흥미진진한 극적이야기로 엮여져있다. 운전칸의 빈자리 하나를 놓고 벌어지는 첫 정황에서 남자가 양보하는것이 웅담하다고 관중도 인정하는 참인데 뜻밖에 기동수는

에게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었다. 당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만수대에 예술극장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연은 군인들뿐아니라 사회의 각계층 관중에게도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선군시대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들이 울려서야 할 새로운 높이를 설정해주고 현실기 예술창조활동에서 주목을 돌려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을 시사해준다고 하여 그 여음이 사투 컸다.

또한 《전로속의 나의 노래》,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전시기요들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와 같은 선군시대의 명곡을 하나로 결합시킨 전시기요연극 역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속 서슴없이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한 우리 군인들의 철철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편곡은 흥련의 열참에 군인들이 늘 부르며 명곡의 의지를 키우고 열렬한 조국애를 불태우던 전시기요들과 명곡들을 재치있는 편곡수법과 극적인 음악구성으로 편결시킴으로써 정서적과 격렬적의 통일속에 조국경사호의 진리를 진하게 새겨주었다.

예술선동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선동의 의도에 맞게 소재와 작품종류를 선택하고 선동목적과 대중심리, 작품의 종류특성을 예술적으로 잘 결합시키는것이다. 좋은 음식같은 고유한 맛을 잘 살리고 담는 그것을 잘 선택해야 훌륭한 요리로 완성되는것처럼 예술선동작품창작에서도 소재들을 자기 그릇에 정확히 담고 그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형성해야 선동목적을 충실히 달성할수 있다.

이번 면에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의 창작가들과 지도일꾼들은 훌륭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현실기 당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문제들을 명백하게 반영할수 있는 노래들과 사실자료, 문학작품들을 골라 그것을 담을 작품종류를 정확히 설정한 다음 화살소품은 그야말로 문학적이면서 생활적인 극작품답게, 음악작품은 성악과 기악의 효과가 최대로 발휘되는 음악성있는 예술작품답게 형성하였다.

작품창작과 형성지도의 측면뿐아니라 종목구성과 공연흐름배치에서도 본받을 만한 좋은 경험이 있다. 종목구성을 인식교양적의와 감정적의 흐름에 맞게 분리하였다. 형성적으로 잘 엮음으로써 공연전체를 사상적대가 굽직하게 서고 총적주제에 명백한 하나의 완결된 극예술작품처럼 부각시켰다.

군인들의 구체적인 생활실례, 군대의 특성에 맞게 공연형식을 특색있게 한것도 좋았다. 흔히 공연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합성으로 시작하곤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서 5중창으로 생기발랄하게 시작을 때고 주제사상적내용이 비스무리 작품들을 들춰서 묶어 편결시켜 여운을 증폭시키는 형식은 실로 고아주 컸다.

이번 공연은 또한 자기 군대의 얼굴과 성격을 뚜렷이 살린 개성적인 공연인것으로 하여 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예술선전대활동은 주로 자기 단위의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따라서 해당 단위의 고유한 성격과 생활을 반영한 얼굴이 있어야 한다. 소개가 없어도 어느 단위의 공연이라는것이 대담 안역으로는 공연이라야 개성도 있고 친화력도 있는 성공한 예술선전대공연이라고 할수 있다.

선동이야기 《신념의 차단봉은 울릴수 없다》와 대외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은 수평적사용의 전초선에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전선에서 자기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고 빛내어가는 부대장병들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철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부대의 근위도 같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내 조국의 밝은 달아》 노래선물이 흘러나온다. 명곡의 선율과 함께 초소의 달밤은 고요히 깊어간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생각뿐이고 노래를 불러도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군인들의 순결한 서정심리세계를 군부생활의 정서에 담아 진실하게 보여준 여기에 어른금과 녀성6중창 《내 조국의 밝은 달아》가 전후적인군가에 못지 않는 감화력을 발휘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것이다.

또한 《전로속의 나의 노래》,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전시기요들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와 같은 선군시대의 명곡을 하나로 결합시킨 전시기요연극 역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속 서슴없이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한 우리 군인들의 철철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편곡은 흥련의 열참에 군인들이 늘 부르며 명곡의 의지를 키우고 열렬한 조국애를 불태우던 전시기요들과 명곡들을 재치있는 편곡수법과 극적인 음악구성으로 편결시킴으로써 정서적과 격렬적의 통일속에 조국경사호의 진리를 진하게 새겨주었다.

예술선동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선동의 의도에 맞게 소재와 작품종류를 선택하고 선동목적과 대중심리, 작품의 종류특성을 예술적으로 잘 결합시키는것이다. 좋은 음식같은 고유한 맛을 잘 살리고 담는 그것을 잘 선택해야 훌륭한 요리로 완성되는것처럼 예술선동작품창작에서도 소재들을 자기 그릇에 정확히 담고 그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형성해야 선동목적

을 충실히 달성할수 있다. 이번 면에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의 창작가들과 지도일꾼들은 훌륭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현실기 당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정책문제들을 명백하게 반영할수 있는 노래들과 사실자료, 문학작품들을 골라 그것을 담을 작품종류를 정확히 설정한 다음 화살소품은 그야말로 문학적이면서 생활적인 극작품답게, 음악작품은 성악과 기악의 효과가 최대로 발휘되는 음악성있는 예술작품답게 형성하였다.

작품창작과 형성지도의 측면뿐아니라 종목구성과 공연흐름배치에서도 본받을 만한 좋은 경험이 있다. 종목구성을 인식교양적의와 감정적의 흐름에 맞게 분리하였다. 형성적으로 잘 엮음으로써 공연전체를 사상적대가 굽직하게 서고 총적주제에 명백한 하나의 완결된 극예술작품처럼 부각시켰다.

군인들의 구체적인 생활실례, 군대의 특성에 맞게 공연형식을 특색있게 한것도 좋았다. 흔히 공연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합성으로 시작하곤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서 5중창으로 생기발랄하게 시작을 때고 주제사상적내용이 비스무리 작품들을 들춰서 묶어 편결시켜 여운을 증폭시키는 형식은 실로 고아주 컸다.

이번 공연은 또한 자기 군대의 얼굴과 성격을 뚜렷이 살린 개성적인 공연인것으로 하여 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예술선전대활동은 주로 자기 단위의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따라서 해당 단위의 고유한 성격과 생활을 반영한 얼굴이 있어야 한다. 소개가 없어도 어느 단위의 공연이라는것이 대담 안역으로는 공연이라야 개성도 있고 친화력도 있는 성공한 예술선전대공연이라고 할수 있다.

선동이야기 《신념의 차단봉은 울릴수 없다》와 대외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은 수평적사용의 전초선에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전선에서 자기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고 빛내어가는 부대장병들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철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부대의 근위도 같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영원과 최선에 경애하는 장군님과 군위부대 장병들사이에서 맺어진 가슴뜨거운 인연에 대한 이야기와 부대의 영광스러운 전통에 아로새겨져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실제한 력사적사실을 감동적으로 형성한것으로 하여 병사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투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반드시 훌륭한 군중예술이 태어나기마련이다.

바늘들어갈 틈도 없이 제이고 흥집음데없이 완벽한 이번 공연이야말로 자기그만없는 나도 없이 순결무구한 이 부대 장병들의 사상정신상태를 생명하게 보여준 거울과도 같았다. 이번 공연을 통하여 우리는 한개 부대의 사상정신상태와 문화적소양정도만이 아니라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강성대국건설사업의 기동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력과 높은 문화수준을 충분히 가늠할수 있었다.

이번 공연의 성과는 싸움준비를 하든 예술을 하고 건설과 축산을 하든 인민군대가 모든 면에서 시대의 선구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따뜻한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

《북대포》와 《산울림》

최근의 예술공연들중에서 군중의 가장 큰 인기를 모은것은 아마도 경희극 《산울림》 공연일것이다. 그 유명한 《산울림》은 지금도 지방문화공연의 길에서 그야말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을 본 우리의 소감은 한마디로 경희극 《산울림》을 보고났을 때의 감동만큼 크고 충격적인것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물론 규모나 형식을 놓고 볼 때 《김일성상》을 수여받은 시대의 기념비적명작과 평범한 군부대예술선전대공연을 같이 평가할수는 없다. 하지만 군중의 열렬한 호응과 감동을 불러일으킨 김화력에서는 이 두 공연이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경희극이나 예술선전대공연이나 어떤 충격적인 새로운 사상을 들고나온것은 아니었다. 경희극 《산울림》에는 우리당이 혁명발전의 전 과정에서 일관하게 제시하고 관철해오고있는 계속혁명의 사상 반영되어있으며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에서는 인민군대에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고있는 정책적문제들이 강조되고있다.

그러나 이 두 공연은 각계층 관중을 전례없는 김화력으로 감동시키고 흥분시켰다. 경희극의 인상깊은 장면들은 이미 군중예술의 무대들에 특색있는 형상으로 오르였고있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에서 나오는 대사들과 세부들은 벌써 사람들이 품속에 외우며 방불하게 재현하고있다. 이 놀라운 김화력은 인민이 좋아하는 참다운 예술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원래 예술의 본성 자체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키는데 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수 없다.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해서가 아니라 받아안은 감동이 진정으로 가슴을 울릴 때 군중의 마음의 문은 저절로 열린다.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의 작품들은 어느것이나 소박하고 아담하다. 그러나 모든 작품들이 한결같이 관중의 진정어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작품의 세계에 폭 심취되어 웃고 울며 격동하던 관중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충격적인 사건이나 배우들의 인상적인 연기, 격동적인 호소로 웃기고 울릴것이 아니었다. 생활에서 웅담 있을수 있는 정황과 성격리에 맞게 감정이 저절로 극적으로 흘러나오고 등장에는 그 웃음과 눈물이 하나의 격정으로 폭발하며 시대의 호소, 당의 부름에 관중모두가 심장의

장정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예술선전대와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들을 똑똑 보아주시고 세심한 지도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이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인민군대의 군중예술은 시대의 앞장에서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지금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는 새 작품들로 공연종목들을 빨리 갱신하고 공연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창조전투를 힘있게 벌리는 한편 초소와 창조전투를 총력무장하면서 선전선동활동을 본태있게 벌리고있다.

인민군대의 예술은 나날이 병사들과 인민들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있다. 인민군대의 자랑, 선군의 뜻인 예술선전대를 병사들과 인민들은 어느때 어디서나 기쁘게 맞이하고있다. 어제날 《순풍의 금수》라든가 몇몇 명곡을 담은 인민군대에서 《왔구나 우리 선전대》라든가 장군님사랑 안고 선전대가 왔구나...》라고 병사들이 흥겹게 부를 선군시대의 새 명곡이 태어날 때가 되기를 우리는 이번 공연무대를 통하여 확신하게 되었다.

예술의 본리는 창작가의 주관적의도가 아니라 생활의 본리, 감정의 본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것을 무시한 작품은 아무리 의의있는 사상을 반영하였다 해도 대중의 외면을 받는 《죽은 작품》으로밖에 될수 없다.

생활의 본리, 감정의 본리에 충실한 명작을 창작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당에서는 이미 작은것에서 큰것을, 배사로운것에서 심오한것을, 소박한것에서 위대한것을 이끌어내는것이 우리 식의 명작, 대작창작의 원리라고 밝혀주었다. 인간간의 감정과 생활이 바로 이런 원리를 타고 흘러가고있다. 이번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의 성공이 그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었다.

《이번 경우에 총애 누가 쓰는가?》하는 한자소제명리의 배사로운 질문으로부터 무자유의 총을 위해 생명을 바친 투사의 마지막당부에 대한 화답으로 이어지는 회상기선동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도 감동적이고 차단봉이라는 작은 세부에서 조선혁명의 운명과 직결된 병사의 결사투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파헤치는 선동이야기 《신념의 차단봉은 울릴수 없다》도 충격적이다. 고유한 초소의 달밤에 장군님의 진실같은 그르려는 녀성들의 심리정서세계에 발을 붙이고 창작된 어른금과 녀성6중창 《내 조국의 밝은 달아》와 《전호속의 나의 노래》로부터 시작되어 《결전의 길로》를 거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의 노래로 점차 승화되고 폭발하는 전시기요연극도 감명이 매우 크다.

우리 인민들은 원래 요란하고 지나치게 화려한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머니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소박하고 순결한것이 아름답다는 우리 식의 아름다움의 철학을 가르쳐주시었다.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이 대성공을 거둘수 있는 비결은 작품의 소박함과 진실성에 있다. 순간 오지의 그자마한 농촌마을에서 벌어지는 아가자기한 생활이야기에서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본질이 흘러나왔고 관중이 스스로 우리 당정책의 현명성과 정당성을 확신하며 오늘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서 위훈자가 될 결심을 굳게 다지게 되는것이다.

관과 형식이 담아야 한다는 법이 없다. 오히려 소박하고 작은데서 우리나오는 사상의 김화력이 더욱 큰 법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열처리설비들을 적극 정비하여 다룬 공장, 기업소들에서 널리 받아들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현대적인 열처리설비만 받아들여도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기업공업부문의 주요공장, 기업소에서 현대적인 열처리설비들이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다른 단위들에게 열처리설비를 배우고 열처리기술을 배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신것에서이것이 현대적인 열처리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새기며 일꾼들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란 누구나 다 기술을 배워야 하며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할 때만이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다는 깊은 뜻과 우리의 모든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을 정보산업시대의 당당한 주인으로 키워주시려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을 심장으로 결합하였다. 그 이듬해 한해가 더 저물어

사람들은 예술선전대나 예술소조의 공연을 좋아하는것이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이 거둔 성과들은 현시기 예술창조사업에서 반드시 주목을 돌려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를 시사해주고있다.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인민의 문명수준과 미학정서적요구는 이전에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인민들은 보다 지성도가 높고 철학성이 깊은 예술, 사색적이고 감동과 여운을 크게 안겨주는 진실하고 고상한 예술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의 대고조투쟁체제가 우리의 생활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고상한 문명의 평야마루에 보란듯이 올려세우기 위한 위대한 창조사업이다. 이 막한 투쟁속에서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의 사상적과 문화수준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시대와 인민의 이러한 요구에 만족을 주는 명작을 창작하자면 대중을 무한히 존중하고 그들의 심리를 깊이 파악하여 대중의 사상감정을 보다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수 있는 진지한 탐구자세와 높은 창조적능력을 가져야 한다. 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침투해들어들수록, 진실하고 소박해질수록 예술은 더욱 고상해지며 그 김화력은 열배로 커지는 법이다.

어머니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북한민정의 결실 《북대포》의 위력을 남김없이 열렬히 찬탄하신 하모니카중주단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북한사람들과의 접촉을 언설로 시작하였다가 실제한 정치공작조와 마을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제친 하모니카중주단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정치공작조가 실제한 원인은 사람들이 혁명화해왔다는 실례를 지적하며 사색한 생각한대 있으며 하모니카중주단의 성공의 비결은 그들이 진행한 선전공작의 통속성과 진실성에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비록 소박하지만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이 그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것은 어머니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신대로 예술창조활동을 철저히 항일유격대식으로 벌였기때문이다.

이번 공연이 발휘한 거대한 김화력은 군중의 심리와 감정과 밀접하게 결합된 예술을 창조한다면 작은 《북대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대한 《산울림》을 울릴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 주었다.

사상을 정서적으로, 김화력으로 전달한다는것은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작품의 의도와 대중의 심리의 결합, 이것은 나아가서 당정책과 생활의 일치이며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군중예술의 본보기로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는 인민군대의 예술선전대, 군인가족예술소조들의 성과들이 이를 본증해주고있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공연이 보여준 인민군대의 예술창조기공과 창조정신을 선군예술단체뿐 아니라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 지도일꾼들이 본받아야 할 귀중한 교본으로 된다.

시대와 혁명을 앞장에서 이끌고있는 수령의 헌명,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인 백두산혁명강군의 예술을 본받자. 인민군대야 울림 《북대포》의 포성에 화답하여 선군문화창조의 《산울림》열풍을 더 부태기어주시자.

위대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심장으로 결합하게 해준 뜻깊은 공연이었다.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활기차게 전진하는 주제예술의 발전에 참신한 활력을 부여준 의의있는 공연 무대였다.

리 경 섭, 우 정 혁



어머니수령님께서 농업기술인재육성을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원산농업종합대학에서— 최 충 성 찍음

강 동 란 광 회상기를 통한 교양사업 활발 명파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집대성되어있는 《항일빨찌산장학자들의 회상기》를 통한 교양사업을 현실과 결부하여 실시있게 진행하고자한다. 초급당위원회 의 지도밑에 청년학생 《항일빨찌산장학자들의 회상기》를 통한 정치사업이 화신식으로 활발히 벌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과학기술을 떠나서는 어떤 사업도 할수 없으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지 않으면서는 강성대국을 건설할수 없습니다.》

지난 6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이 곳 로동계급이 새로 만든 굴착기를 보아주시고 이가 기술개건된 유망기구직장, 건설기술설계연구소

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과학화를 더 높일수

준에서 다그치면서 내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잊을수 없다. 그날 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열정을 강화하여 높은 기계에 맞게 정치사업을 능동적으로 함으로써 재관공정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이 곳 탄부들은 조선로동당대 표지회를 자랑한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남다른 헌신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로동동원원 김 일 남

위대한 선군정치의 손길은 락원망의 기적과 비약을 안아오는 영원한 생명력이다.

락원로동계급이 추억없이 더듬는 수많은 이야기들중에는 몇해전 5월 어느날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그날 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구내에서 새로 건립된 락원의 로동계급과 함께 계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대형모자이크회화

형상적교양실을 돌아보시고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현대화를 빛나게 실현한 열처리장들을 보아주시었다.

사실 그 직장으로 말하면 우리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찾으신 때부터 늘 깊은 관심을 두셨다면 직장이었다.

언제나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에 건강부담 해버려주시는 경애하는 이에게서는 직장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해나갈 결심을 굳히시고 그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도록 하시었다. 어머니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있었기에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데같이 일떠서 짧은 기간에 락원적인 열처리장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았던것이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막대한 기련합기업소를 몸소 확인주시었다. ...

한편에 환한 미소를 지시하며 직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설비들로 그르하게 꾸려진 생산공정이며 흥겹게 일하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에서 시종 눈물을 매지 못하시었다.

그러시던 이에게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열처리장들을 아주 잘 꾸렸다고,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자신의 끝없는 로고와 인정 속에 마련된것이지만 모든 성과를 기업소에 다 돌려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마다에는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로동자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일하게 된것이 이리도 기쁘시어 만족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이에게서는 이 열처리장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잘 꾸려놓았다는 깊은 좋은가고 하시며 이런것을 보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것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고 과학기술의 활발한 보급을 두고 마음쓰시는 그의 로고는

가서 12월의 어느날 또다시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완공된 신호추출정비실을 돌아보시며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주시었다.

이날 현장에서 들어서시어 일군들로부터 현대화된 주물생산공정호흡식설비들의 성능, 생산능력과 작업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로해하신 경애하는 이에게서는 신호추출정비실을 좋은 설비들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민것만큼 이제는 질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요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꾸준한 배우는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힘의 그 대책적문제들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정년 기림처럼 전하의 나날 수평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자랑한 서사사가 엮어진 락원망을 자력갱생의 진풍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요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꾸준한 배우는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힘의 그 대책적문제들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정년 기림처럼 전하의 나날 수평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자랑한 서사사가 엮어진 락원망을 자력갱생의 진풍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요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꾸준한 배우는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힘의 그 대책적문제들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정년 기림처럼 전하의 나날 수평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자랑한 서사사가 엮어진 락원망을 자력갱생의 진풍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요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꾸준한 배우는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힘의 그 대책적문제들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조국의 만년재부를 날바다우에 일떠세운 정신력의 대승리

대 계 도 간 석 지 건 설 완 공 에 관 한 조 선 중 앙 통 신 사 보

인민의 세기적리상이 전면적으로 꽃피고 있는 조국강산에 대자연계의 자랑찬 승천가가 울려 퍼져 천만군민을 격동시키고 있다.

간석지개간력사상 제일 큰 8 800정보의 대계도간석지건설이 완공됨으로써 서해에 널려있던 습ดิน 대다사도,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가 수십리 제방으로 련결되어 골목이 심하였던 염주군, 철산군의 해안선이 대폭 줄어들고 위대한 선군시대에 조국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글자의 간석지에 사회주의대농장과 함께 소금밭, 양어장들이 새로 생겨나고 방조제의 덕으로 여러 군의 바다가농장들과 마을들에서 해일, 염기피해를 영연히 모르게 되었으며 아득히 짙어졌던 만년재방을 따라 염주군 다사로동자구로부터 철산군 장승로동자구까지 대륙환선로가 형성되고

일망무제한 전야가 푸르른 바다와 조화를 이룬 장쾌한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서해갈문에 못지 않으며 웅근 한개의 방방군 경지면적을 새로 얻어냈고 맞먹는 대계도간석지건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에 자연의 횡포한 광란을 길들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상 없는 정신력의 대결전이었으며 선군조선의 만년재부를 조국방우에 눈부시게 떠올린 성스러운 애국위업이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대자연계의 세 역사를 펼치고 빛내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전하며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로 제2의 서해갑문건설과 같은 력사의 기적을 창조한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을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하도록 하기 위해 대계도간석지건설에 관한 상보를 발표한다.

청년 바다물이 초당 7~8m의 속도로 드나들어 3호방조제 타진 구간은 길이는 초기 350m인것이 450m로 늘어나고 물폭박막은 17m로부터 35m로 패었다.

세찬 물살에 무게가 여러이나 되는 돌이나 철방울, 콩크리트구름들도 순간에 떠내려가는 사나운 날바다와의 대결전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수십, 수백자본의 막달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공사는 좀처럼 진전하지 못하였다.

난관은 겹쌓였지만 당이 결심하면 언제나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로동계급의 사생결단의 각오와 창조력은 더욱 비상해졌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을 심장같이 새기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전진의 물과기를 얻어냈다.

책임일군들이 총동기가 되어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오고 국가과학원 건설재분원 간석지연구소, 함흥수리동력대학 등 여러 단위 과학자,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방조제에서 실정과 실리에 맞는 공법들과 기술혁신안들이 수십건이나 창안도입되었다.

많은 공법들이 수리공학적으로 맞게 단계별로 적용되는 과정에 콘크리트배탕공법, 특성상적물사주부석기공법과 같이 세계간석지건설사에 없는 우리 식의 독특한 공법들이 창조되어 공사속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마감막이 구간이 점점 좁아져 100m 정도에 들어서면서 공사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방조제내외수위차에 의한 물압력, 물로름속도 등 기술공학적조건이 극한점을 넘나드는 속이 1차물막이공사완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조건인 이 고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안이 벌어졌다.

피하는 노력으로 쌓아올린 제방이 순간에 뚫히기 시작했다.

7월의 이물사이에 수십m나 허물어졌고 같은 거둬지는 악조건속에서 달의 인력을 차단하기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제방을 에둘러 쌓아야 한다는 좌절감과 동요가 전진을 가로막았다.

중흥되는 시련과 난관에서도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자나거나 그리운 장군님과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불사라고 같이 억척같이 일했다.

마감막이극한상태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공법들이 창안되고 날씨와 물때에 관계없이 배리용물을 훨씬 높일수 있는 방법들이 착상되었으며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져 전투원들의 투쟁열의는 비상히 고조되었다.

20분만에 50m의 막들을 배에 실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 창조되고 건설자들도 두가 비바람이 사나울수록 전투원장으로 나가는것은 보통일이 되었다.

바다의 정복자들이 지닌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 주듯 전투장 어디나 붉은기가 휘날리고 간석지건설로 땅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지키자는 구호가 나붙었으며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등의 노래가 당당대대로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감막에서 제기되는 예로와 난관을 헤아리시고 필요 대책을 다 세워 주신 영도의 손길은 무비의 새힘과 용기를 날려 주세 94 (2005)년 6월 11일 마침내 3호방조제가 다시 이르고 대계도간석지 1차물막이공사가 끝나는 자랑찬 승리가 이루어졌다.

자원의 광란을 쳐물리친 3호방조제 마감막이공사는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겹칠도 함께 하는 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으며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당할 함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것을 만방에 두텁이 파시하였다.

간들인 가차도와 소연동도사이의 2호방조제, 대계도와 철산군의 등곳을 련결하는 4호방조제가 성과적으로 완공되었으며 대다사도와 가차도사이를 질러 뚫은 1호방조제공사에서도 기적과 위훈이 수없이 창조되었다.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드높은 신심과 충직한 기세를 안고 매일 계획을 250%로 해체하면서 반년분공사과제를 두달남짓한 기간에 앞당겨 완수하는 등 결사판결의 돌격진을 과감히 벌려 공화국창건 60돌을 앞두고 1호방조제를 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계도간석지방조제들 가운데서 제일 긴 8 000여m에 달하는 소연동도와 대계도사이의 3호방조제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당의 위업을 만드는 간석지로동계급의 고결한 총성과 애국의 열정은 더욱 뜨겁게 불타올랐다.

3호방조제공사에만도 대계도간석지건설에 소요된 토량과 막돌 총량의 60%이상이 투입된 사실은 이 공사가 얼마나 아릅답고 고강한 투쟁이였는가를 실증해 주었다.

바다바람이 사납게 불어치는 방조제 위에서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로 심장을 불태우며 한달이상 걸려야 하던대 양방과부콩크리트치를 5일 만에 끝내고 마감막이를 한 450m구간의 장석쌓기기일을 열흘로부러 초월로 단축한다는 비호를 비롯하여 기상관례를 초월하는 눈부신 혁신을 일어나갔다.

억년 드물지 않은 천군제방을 쌓으려는 이들의 헌신적인 애국투쟁에 의해 3호방조제의 든든함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에 장석이 든든히 쌓아졌다.

화물자동차들이 한대당 평균 매일 1 000여리의 거리를 쉬임없이 달려며 물동량을 운반하고 배들도 수송기일을 훨씬 단축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혼석과 대형부재들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150일전투기간에만도 3호방조제완성공사량의 90%이상을 해체하는 혁혁한 전과가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계도간석지완성공사가 힘있게 벌어지면 이 나라에 건설현장을 두차례나 찾으신어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나아가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강선의 불화를 지퍼 주신 력사적인 12월에는 노래 《간석지에 새겨진 청춘의 마음》을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시어 간석지건설자들을 크게 고무격려해 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결사의 투쟁과정에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세상이 없는것도 용감하게 해내는 조선로동계급의 높은 투쟁열의가 높이 발휘되었다.

마감막이구간의 지수공법과 콘크리트에 의한 방조제앞면보강공법 등이 새롭게 창안도입되고 방조제로반기초가 세뼌트대신 원천이 풍부한 장석으로 전면 다져졌으며 방조제중간에 분리띠가 형성됨을 비롯하여 실정과 실리에 맞고 어느 간석지건설에나 다 도입할수 있는 독특하고 과학적인 공법들이 연이어 창조되었다.

한번 함파를 잡으면 500번이상 휘두르고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건설 전기간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드는 바다의 정복자들의 불굴의 정신세계와 무비의 용맹을 보여주는 위훈들이 수없이 꽃피었다.

대계도간석지를 하루빨리 개간하려는 건설자들의 애국의 열정과 영웅적투쟁속에 해일피해복구가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째의 화물자동차로 무려 백수만대분에 달하는 토량과 막돌로 방조제들이 완성되고 배수문설치와 중간 및 하천제방쌓기를 비롯한 내부방공사도 동시에 진행되어 수천정보의 간석지가 옥담으로 전변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민선군선군주의대의를 넘치는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온 나라 인민이 떨쳐나 완공의 날을 앞당겨 나갔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건설성, 농업성, 철도성, 체신성, 상업성, 보건성, 화학공업성, 직충중앙위원회, 련관기관연합기업소, 평안남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황해남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성, 중앙기관들과 련관단위들, 평안북도당위원회와 염주군 등 보내 많은 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보장해주고 정신성있게 도와주었으며 여러 과학연구기관들에서도 공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떠밀어 주었다.

전당, 전군, 전민의 힘있는 지원속에 3호방조제 건설에 완성됨으로써 대계도간석지건설은 마침내 끝났고 나라의 서북변에는 강성대국의 승리를 예고하는 휘황한 번이 일어났으며 내 나라를 후손 만대에 무궁할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시기 위해 간석지건설의 용맹한 실적으로 펼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 또하나의 빛나는 현실로 펼쳐졌다.

서해의 날바다에 대농장이 솟구쳐오른 이 거창한 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대자연계 조상과 련명천 영도의 빛나는 승리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서 어떤 방물이 몰아쳐와도 순간의 주저나 담보로 결코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떠밀어 나가는 영웅적 조선로동계급의 무한한 정신력과 완강한 투쟁기질의 일대 파시로 된다.

천년만년의 풍작을 보증하는 대계도간석지건설의 완공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사회주의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나갈 때 변영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인민의 행복이 파도처럼 넘쳐나기 시작할 것이다.

수천천 날바다에 잠겨 쏘모였던 땅이 인민의 행복찬 삶의 터전으로 전변된 거창한 현실을 통하여 세계는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방우에 《대계도의 기적》을 수없이 창조해 가는 조선로동당의 강성대국건설도와 영도력이 얼마나 휘황하고 위대한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간석지건설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부름을 받들고 서해안의 간석지들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만년터전으로 전변시켜갈 충성한 기세에 넘쳐 새로운 전투들로 달려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진격로까지 새로운 대계도시대의 천리마를 타고 폭풍쳐달리는 천만군민은 무비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총폭발시켜 대계도 지구의 천지개벽을 이 땅우에 다져내어 일으키며 머지 않아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선포할 것이다.

주제 99 (2010)년 6월 30일
평 양

자원의 광란을 쳐물리친 결사관철의 정신력

조국의 풍성변영을 위한 당과 수령의 위대한 대자연계 조상과 련명천 영도는 이 땅우에 간석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기 항일의 혈전길에서 서해안간석지건설의 용맹한 실적을 무르익히시고 가말한 전야의 불길속에서 간석지조사단을 무어 주시면서 조국의 만년재방을 위한 대자연계 조의 초행길을 개척해 나가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제 47 (1958)년 6월 22일 파도사나운 배길로 서북단의 외진 섬인 무명평과 신도, 마안도, 다사도를 뚫소 돌아보시고 주제 55 (1966)년 8월 26일 세찬 비바람속에서 비탄성간석지개간사업도 현지에서 지도하신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아래 간석지건설의 세 력사가 이 땅우에 펼쳐졌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5 500정보의 비탄성간석지가 개간되고 다사도간석지, 확산간석지 등 여러 간석지들이 서해기슭에 연이어 솟아나며 대자연이 수십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대계도간석지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대규모의 간석지건설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항과 방도를 확히 밝혀주시며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어 대계도간석지의 1차물막이공사 성과적으로 끝나고 개간된 포전들에서 기계농사의 동음이 높이 울려 퍼졌다.

주제 86 (1997)년 8월 21일 우리 나라 서해안의 천만터전지역에 수백년 만에 없었던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다.

오랜 시간 지속된 강한 태풍과 끊임없이 밀려드는 산악같은 파도로 하여 대계도간석지방조제는 4개소에 걸쳐 큰 800나타리터나고 남은 구간들도 혹심하게 파괴되었으며 드넓은 농경지와 수많은 설비, 물건기재들이 하루아침에 바다물에 잠겼다.

력사를 펴내었다. 《그리하여 함께 설상가상으로 들이닥친 자연재해는 간석지건설을 절할 수 없는 엄혹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 엄중한 시기에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은 제2의 서해갑문건설과 같은 대계도의 기적을 낳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만년재방의 애국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하루빨리 해일피해를 가시며 대계도간석지들 또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총동격전에 로 전체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당, 전군, 전민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로 이끄시려는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복구방항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간석지건설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명명도 하달하시며 필요한 조치들 다 취해주시었다.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수많은 유압식굴착기와 물건기재들도 우선적으로 보내주시고 건설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피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은 대계도간석지건설에 펼쳐나신 로동계급의 심장마디에 불사신의 용맹과 무비의 담력을 안겨 주었다.

장군님만 믿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간석지건설자들의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어오른 뜨겁지는 신념과 철적의 의지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따라 력사가 제철하지 못한 험난한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갈 결사의 각오를 안고 대계도간석지복구건설전투에서 미증유의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갔다.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은 기업소의 전통을 이어 《당원들격대》, 《청년결사대》가 조직되고 안방을 깨내는 정대와 함마소리가 온 건설장에 그칠새없이 울려 퍼졌다.

건설자들은 막들을 지고 하루에 연 100여리를 달리고 운반수단들을 총동격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악조건투를 벌려 대다사도와 가차도사이 1호방조제, 가차도와 소연동도사이 2호방조제의 타진 구간들을 복구하고 주제 90 (2001)년 8월부터 소연동도와 대계도사이 3호방조제 마감막이공사에 진입하였다.

대계도간석지의 1차물막이를 마감지어야 하는 이 공사는 간석지건설력사에 전례 없는 최악의 역경을 동반한 결사전이었다.

1, 2호방조제복구가 끝나고 바다물이 전부 내륙으로 쓸림으로써 밀물과 썰물때마다 한번에 2억 5 000만이상의 염

천년만년의 풍작을 보증하는 사회주의대농장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관건적인 3호방조제 마감막이를 끝내어 대자연복복의 장훈을 크게 부른 건설자들은 간석지로서 어떤 자연의 풍파에도 끄떡없는 만년재방의 기비비적창조물로 완성하기 위한 공사에 즉시 진입하였다.

간석지건설총량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수심리방조제의 완성공사는 인민의 리상사회 건설을 떠맡는 또하나의 애국초석을 다지고 후손만대에 물려줄 선군조선의 재부름을 마련하는 성스러운 애국투쟁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대양도 가로막을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용감한 투사, 창조적 능수들로 저러한 간석지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드높은 열의와 각오를 안고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겹칠도 함께 하는 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으며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당할 함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것을 만방에 두텁이 파시하였다.

방조제보강과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돌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체제전투장은 공사의 전진속도를 좌우하는 전초전이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투원들은 암질조건에 맞는 돌출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가동물을 최대한 높여 공사기간 30만산대돌과 등 50여치의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막돌과 토량보장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끊임없는 발파와 체적으로 돌레가 1 100여m, 해발 수심m의 소연동도가 10%도 안되게 남은것을 비롯하여 대다사도와 가차도, 대계도가 거의 평지로 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전투현장에서 이동수리기재들이 전개되고 기계화수단들의 리용률이 높아지며 체제적실적이 곧 공사속도로 이어지고 방조제의 면모는 매일, 매시간 눈으로 띄게 달라졌다.

간석지로동계급의 증가한 투쟁으로 주제 96 (2007)년 7월까지 짧은 구

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근인정신으로 한개 구간의 력량을 집중투쟁으로 확정성으로, 장석쌓기, 콩크리트치, 로반공사 등 건설공정전반을 립체적으로 밀어냈다.

96의 고성이 클수록 행의 행복이 앞당겨진다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지닌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건설전투는 세찬 파도와 폭우속에서도 발맞추어 달려가 치열하게 벌어져 승리의 시간표는 날마다 앞당겨졌다.

방조제보강과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돌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체제전투장은 공사의 전진속도를 좌우하는 전초전이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투원들은 암질조건에 맞는 돌출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가동물을 최대한 높여 공사기간 30만산대돌과 등 50여치의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막돌과 토량보장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끊임없는 발파와 체적으로 돌레가 1 100여m, 해발 수심m의 소연동도가 10%도 안되게 남은것을 비롯하여 대다사도와 가차도, 대계도가 거의 평지로 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전투현장에서 이동수리기재들이 전개되고 기계화수단들의 리용률이 높아지며 체제적실적이 곧 공사속도로 이어지고 방조제의 면모는 매일, 매시간 눈으로 띄게 달라졌다.

간석지로동계급의 증가한 투쟁으로 주제 96 (2007)년 7월까지 짧은 구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관건적인 3호방조제 마감막이를 끝내어 대자연복복의 장훈을 크게 부른 건설자들은 간석지로서 어떤 자연의 풍파에도 끄떡없는 만년재방의 기비비적창조물로 완성하기 위한 공사에 즉시 진입하였다.

간석지건설총량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수심리방조제의 완성공사는 인민의 리상사회 건설을 떠맡는 또하나의 애국초석을 다지고 후손만대에 물려줄 선군조선의 재부름을 마련하는 성스러운 애국투쟁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대양도 가로막을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용감한 투사, 창조적 능수들로 저러한 간석지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드높은 열의와 각오를 안고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겹칠도 함께 하는 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으며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당할 함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것을 만방에 두텁이 파시하였다.

방조제보강과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돌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체제전투장은 공사의 전진속도를 좌우하는 전초전이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투원들은 암질조건에 맞는 돌출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가동물을 최대한 높여 공사기간 30만산대돌과 등 50여치의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막돌과 토량보장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끊임없는 발파와 체적으로 돌레가 1 100여m, 해발 수심m의 소연동도가 10%도 안되게 남은것을 비롯하여 대다사도와 가차도, 대계도가 거의 평지로 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전투현장에서 이동수리기재들이 전개되고 기계화수단들의 리용률이 높아지며 체제적실적이 곧 공사속도로 이어지고 방조제의 면모는 매일, 매시간 눈으로 띄게 달라졌다.

간석지로동계급의 증가한 투쟁으로 주제 96 (2007)년 7월까지 짧은 구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관건적인 3호방조제 마감막이를 끝내어 대자연복복의 장훈을 크게 부른 건설자들은 간석지로서 어떤 자연의 풍파에도 끄떡없는 만년재방의 기비비적창조물로 완성하기 위한 공사에 즉시 진입하였다.

간석지건설총량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수심리방조제의 완성공사는 인민의 리상사회 건설을 떠맡는 또하나의 애국초석을 다지고 후손만대에 물려줄 선군조선의 재부름을 마련하는 성스러운 애국투쟁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대양도 가로막을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용감한 투사, 창조적 능수들로 저러한 간석지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드높은 열의와 각오를 안고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겹칠도 함께 하는 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으며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당할 함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것을 만방에 두텁이 파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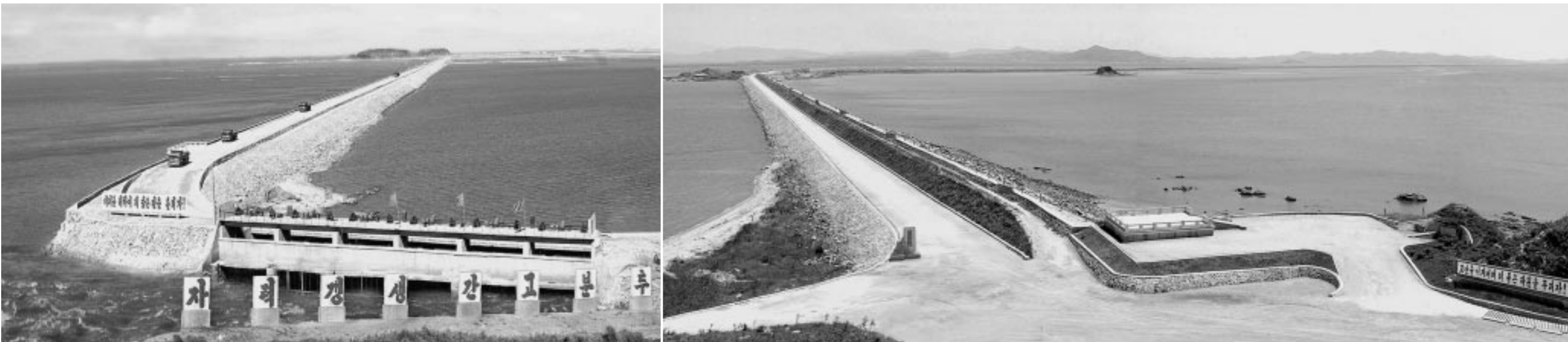
방조제보강과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돌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체제전투장은 공사의 전진속도를 좌우하는 전초전이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전투원들은 암질조건에 맞는 돌출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가동물을 최대한 높여 공사기간 30만산대돌과 등 50여치의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막돌과 토량보장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끊임없는 발파와 체적으로 돌레가 1 100여m, 해발 수심m의 소연동도가 10%도 안되게 남은것을 비롯하여 대다사도와 가차도, 대계도가 거의 평지로 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

전투현장에서 이동수리기재들이 전개되고 기계화수단들의 리용률이 높아지며 체제적실적이 곧 공사속도로 이어지고 방조제의 면모는 매일, 매시간 눈으로 띄게 달라졌다.

간석지로동계급의 증가한 투쟁으로 주제 96 (2007)년 7월까지 짧은 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데서 인민의 가장 중요하였는 현민생활문제 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것입니다.》

은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은천군의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있다.

인민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리

은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은천군의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있다.

인민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리

은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은천군의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있다.

인민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리

은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은천군의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있다.

인민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리

은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은천군의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있다.

수질이 좋은 물로 자연수도화

은천군에서 읍지구의 자연수도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읍지구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고 군소재지 주변 4개 농장의 일부 작업단 농정원 새들에서도 자연수도화의 덕을 볼수 있게 하였다. 어느때든 수도꼭지만 열면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온다. 맑았 또한 좋아 누구나 기쁨을 감지 못해하고있다.

군에서는 지난해 구월산기슭의 어느 한 지역에 연계를 쌓고 읍지구 자연수도화를 실현할 용이 큰 작전을 펼쳤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여러차례 현지를 걸어 보며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군소재지는 물론 여러 농장 작업단

농, 김정철동무를 비롯한 공사지휘부일군들은 하천에 뛰어들어 근로자들과 함께 수만m³의 모래와 자갈을 마련하였고 마래와 손달구지 등 각종 운반수단을 리용하여 20리가 넘는 먼거리까지 팔레를 운반하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

전기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며

최근년간 은천군에서는 군당위원회와 지도면이 전기문제를 자체로 풀기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 군의 일군인 민방철동무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은천군에는 수많은 소형풍력발전기가 가동되고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적지 않다고 한다.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를 전기로 바꾸어 사용한다. 일군들은 공사과정에 암반이 나오면 암장에서 함파를 휘둘렀고 5개의 하천횡단구조물공사때에는 허리치는 물속에 남뚝이 튀어들어 돌과구를 열어나갔다. 제일 어려웠던 리퍼지연체쌓기공사때에도 군의 책임일군들과 김철

등과 인민들이 사회주의복을 마윳게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함에도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나가고 있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으로 하여 군에서는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읍지구의 자연수도화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풍력발전기는 삼선, 량달리의 일부 가정들에서만 리용하고있었다. 정효성동무를 비롯한 삼선리 일군들이 가정세대내이나 유치원과 학교 등 공공건물들에도 풍력발전기를 갖추어놓았다.

군의 일군들은 이런 성과를 공히 하면서 풍력발전기의 리용분야를 넓히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의 책임일군은 이 사실을 불쏘려 하여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기로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면에서 군에서는 풍력자원을 적극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일으켰다. 우선 앞선 단위들에 대해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군의 기술일군들이 기술지도를 책임지게 하고 필요한 풍력발전기생산은 군농기계작업소와 능기구공장에서, 도입사업은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이 앞에서 관철하도록 하였다.

불꽃은 불길로 번져 몇해 사이에 은천군의 풍력발전기 수가 늘어나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일부 농장들에서는 가정세대내이나 유치원과 학교 등 공공건물들에도 풍력발전기를 갖추어놓았다.

군의 일군들은 이런 성과를 공히 하면서 풍력발전기의 리용분야를 넓히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애국의 열정 굽이친다

신 창 청년 탄 광 에서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려는 신창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애국의 열정은 높은 석탄생산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높이 세운 삼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달에 들어와서도 전진속도를 비약히 높이고있다.

5광과 2광, 6광, 8광을 비롯한 탄광의 모든 광에서 매일 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동력기지를 위한 투쟁에 일군들과 탄부들을 조직동원하고있다.

5광 체탄3중대, 2광 체탄1중대, 6광 체탄4중대, 8광 체탄1중대의 탄부들이 삼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이달에 들어와서도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5광 체탄3중대장 박금성동무는 이산적적의 기풍을 높이 발

휘하면서 체탄장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감으로써 체탄공 1인당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중대의 탄부들은 폐가 고대를 들은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계속 드세한 공작진을 들이내며 매일 많은 량의 석탄을 출산하고있다.

탄광에서는 이 체탄중대에서 창조되고있는 성과와 경험을 다른 중대들에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탄광에서는 장마철피해막이 대책을 면밀히 세워 석탄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이곳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높이 세운 돌간 석탄생산목표를 기어 이 달까지 초과하여 10월의 경적광장에 멋있게 뛰어넘는 열의와 필승의 락판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강 명 천

비약의 속도 CNC바람

빠르고 들쭉하게 (♩ = 132)

작사 리호성
작곡 한진욱

1. 선 - 군 의 천리마가 - 날 으 는 이땅우에 -
 날 - 마 다 들려오는 - 침 단 돌 파 새 소 식 -
 장 군 념 현 신 의 그 자 - 육 파 라 조 국 은 번 게 쳐 달 려 - 간 다 오
 아 - 힘 - 이 솟 네
 아 - 멋 이 로 세
 비 약 의 속 도 C N C 바 람 전 변 의 세 월 - 펠 지 -
 며 만 복 을 불 러 온 다 네

2. 어제는 강선에서 오늘은 희천에서 세차게 타번지는 기적의 그 열풍 장군님 구상을 꽃피워가며 온 나라 강산이 들끓는다오 (후렴)

3. 선군의 강성대국 문패를 걸어놓고 승리의 축포소리 더 높이 울리리 장군님 펼치신 밝은 미래로 인민은 한마음 나래쳐가리 (후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선전화들 창작

【평양 7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으며 군대와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이 나왔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창작한 선전화들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을 상징하는 마크가 빛나고 있다.

선전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경사로!》에는 당창건 65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역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장식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당대표자회를 맞이하는 격정과 환희를 안고 인민



구호문철영구보존을 위하여 바친 진심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 연구사들

김일성종합대학의 물리학과 연구사들이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 구호문철영구보존위원회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를 우리 식으로 더욱 완성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에서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해나가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 연구사들은 주존한 탐구와 고집이런 노력을 바쳐 구호문철영구보존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수자조종기술을 자체로 새롭게 개발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인 구호문철영구보존에 물려줄 수 있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적지에 있는 구호나 무덤들을 잘 보존관리하며 구호문철영구보존을 위한 교양방법도 연구해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9월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를 찾은 물리학과 연구사 박사 장태동무는 그곳 혁명전적지관리소의 일군들과 보존원들이 구호문철영구보존사업을 최선과학적수준과 함께 하여 진행하려고 한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지난 기간 이들은 여러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이 사업을 적극 진행해왔으며 또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들을 적극 도와나섰다. 전자공업설계연구소의 과학자들도 혁명전적지를 만났을 때부터 이들을 위한 숙고한 사업에 참가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구호문철영구보존과 관련한 자동조종기술에 큰 기여를 하였다.

보존원들도 최선과학기술을 기초하여 이미 이룩한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애쓰고있다. 우리 나라가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쥔 조건에서 구호문철영구보존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우리 식으로 더욱 완성하려는 것이 이들의 지향이었다. 그 불같은 저항앞에서 장태동무는 과학자로서 자신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구호문철영구보존은 곧 백두산의 영혼을 고수하고 혁명의 명맥을 지키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이 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조로공동선언발표 10돛에 즈음하여 로씨야 립시 대리 대사 연회 마련

【평양 7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로공동선언발표 10돛에 즈음하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연방 립시 대리대사가 16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판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립시 대리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부연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한 것은 두 나라 관계발전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고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돛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취로 맞이하며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모든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계획한 목표들을 반드시 정명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섭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평양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부연대통령사이의 역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조로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새로운 기

김철에 나래치는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품배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아가야 합니다.》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을 때였다. 김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아가야 합니다. 김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아가야 합니다. 김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아가야 합니다.

김철에 나래치는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 김철에 나래치는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 김철에 나래치는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 김철에 나래치는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용광로 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다시 하면서 설비정비를 간간히 하고 장일회수를 늘이며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5호열풍로의 연소실을 당장 보수하여야 할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 열풍로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수전투를 벌린다면 그것은 벌써 결사판결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수백℃에 달하는 열풍로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3시간동안에 연소실을 보수하여 생산을 보장할 결사정신을 보여준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결사옹위, 결사투쟁의 참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나한 후막을 안고 무대에 나선 2호열풍로 사령원은 하루일기 끝난후 종업원들의 집집을 돌아보며 잠자리를 앞두고 집수리대책, 열감보장대책 등을 빈틈없이 세워준 직장주요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용광로 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력사에 빛날 당대표자회를 커다란 로력적성취로 맞이하기 위하여 더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주봉

남조선의 통일사 한상렬목사 개성지구 참관

【평양 7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통일사 한상렬목사가 13일부터 15일까지 개성지구를 참관하였다.

관문점을 찾은 그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존엄함을 남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를 주의깊게 보았다.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정전협정 조인장 참관



단천시 장내 실천적 모범으로 원들이 한마음한 협동농장 농산

제2작업반 박장식동무는 실천적모범으로 농장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정책으로 불려들이는 실존적농장이다. 문조장으로 일해오는 지난 10여년간 그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겠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언제나 땅에 진심을 불어왔다. 지력이 낮은 여러 정보의 포전을 스스로 맡아안고 기를진 땅으로 걸갈 때에도, 선진적농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포전마다에서 알찬 열매를 거두어들일 때에도 그는 말보다 실천이

몽골을 방문 하였던 외교단사업국대표단 귀국

【평양 7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몽골을 방문 하였던 문성모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단사업국대표단이 16일 귀국하였다.

결사전의 10시간 소결 1 직장에서

김철의 날과 날, 시간과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가. 거기에 대답을 주는 2중3대혁명붉은기 소결1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에서 자금과 설비, 자재 등을 대주지 않아도 체힘으로 일어난 대고조외투쟁을 세차게 밀어붙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습니다.》

몇시간후에는 원로혼합기를 세우고 생산도 중지해야 할 정도로 직장의 위를 파했다. 그때부터 두개의 원로저장용에서 경계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다. 바깥을 허리에 매고 원로저장용안의 수심외 허공중에 매달려 밑에서부터 원수형경사면에 붙은 원로를 한치한치 꺼내던 것은 그야말로 결사전이었다. 한시간 또 한시간...

결사전의 10시간 소결 1 직장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후 영양제식당에서 기다리던 취사원들이 전장점으로 달려왔다. 《식사를 가지고왔으니 올라와 식사를 하십시오.》 《밥을 내려보내주세요.》 취사원들은 눈물을 적시며 식사와 《화식기재》가 담긴 용기를 바깥에 매어 원로저장용에서 내려보내주었다. 《소결로를 순간도 멈추어서 안된다.》 이런 결사투쟁의 의지를 안고 그날 그들이 원로들을 돌리던 그때는 때를 지녔다. 원로저장용에서의 결사전의 10시간. 그것은 오늘날의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사전이란 무엇이며 대고조의 선봉에 선 김철의 로동계급이 오늘날의 날과 날, 시간과 시간을 어떤 결사투쟁의 각오를 가지고 맞고보내기를 지수수 없는 화력으로 남긴 10시간이었다. 본사기자 대령사관보수전투때에는

총 파산사태에 빠져든 대결모략소동

동족을 모해하는 모략극을 조장하고 그것을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악용하는 것은 남조선의 역대 독재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하지만 그 결말은 언제나 비참하였으며 사건의 진상은 남달이 드러나 음모꾼들은 민족의 저주와 규탄속에 파멸을 면치 못하였다. 최근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리명박 역적패당이 악랄하게 벌이고있는 반공화국대결소동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피뢰침이 합선침몰사건을 겹고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은 북남판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모략책동이다.

리명박당일이 집권하자마자 반민족적 인대결정책에 기초하여 동족을 《주적》으로 대하러먼저 우리의 존엄성을 제체로 모독하고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남편 사실은 이미 폭로되었다. 그 무는 《금번사태》니, 《선제타격》이니 하는 도발적용언까지 췌치며 조선반도의 군사적장상태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핵전쟁발발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킨 피뢰침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판기는 이번 합선침몰사건조작을 계기로 최절정에 달하였다.

《천안》호사건은 역적패당이 저들의 비렬한 정치목적달성을 위해 무조건 파멸시킨 남조선, 모략극이다. 역대 남조선의 친미사대대국노들이 일인적 동족대결소동이 그 어느것이나 다 그러하였지만 리명박패당이 조장한 이번 모략사건은 그 악랄성과 교활성, 집요성에 있어서 전례없는것이다. 피뢰침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천안》호가 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티무니없는 여론을 내들리면서 북남대결을 극구 고위하였다. 이어 《민군합동조사단》이라는것을 내세워 어디서 주어진 것인지 알수 없는 《어뢰추진체》니 뭐니 하는 《증거》들을 내놓으며 《북어뢰공격》설을 정당화하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리명박역적은 5월 24일 《조사결과》에 따른 그 무는 《단호한 대처》니 뭐니 하며 북남판계를 전면폐쇄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한편 피뢰침부대거리들은 《웅진》과 《보복》따위를 떠들어대고 군사문제선언대에서 《대북시위》를 재개한다. 미국과 《대북무력시위》형식의 합군사연습을 벌인다 하며 소동을 피웠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국회》에서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를 겹고드는 그 무는 《규탄결의안》이라는것을 통과시키는 망동을 부리었다. 외세의존에 환장인 된 피뢰침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통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것이 《외상적인 방안》이라고 떠벌이며 합선침몰사건을 국제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미일상정들을 발바닥에 붙여 일도록 찾아다니며 반공화국제재와 《공동보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역력》 등을 구걸하였다. 하지만 합선침몰사건을 겹고 동족을 모해살하려는 피뢰침들의 지악한 기도는 겹고 실현될수 없었다. 지금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피뢰침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왜서든 전례없는것이다. 《조사결과》

라는것이 우리를 모해살상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꾸민 완전한 모략극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명백해지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역적패당이 조장해낸 합선침몰사건을 《정치적의도》를 가지고 꾸며낸 유치하고 뻔뻔한 사기극, 《반공화국모략패당극》, 《동족살상책동의 국제화화》로 남조선으로 락인단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당국이 민심의 요구대로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대결적대북정책》을 전면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지난 6월초에 있는 《지방자치선거》에서 남조선인민들은 합선침몰사건을 조장하고 그것을 동족대결에 악용하는 리명박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었다.

국제적으로도 합선침몰사건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남조선인들을 돌려세워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남조선당국의 음모책동으로 폭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피뢰침들의 기도와는 달리 합선침몰사건에 대해 특출한 판단이나 결론없는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상정들은 민교 기세등등해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이뤄지고 떠들어대던 역적패당은 닭똥개 울쳐다보는 격이 되고말았다.

《지방자치선거》의 대참패와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국제적인 반공화국모략소동의 파탄 등으로 하여 역적패당은 지금 궁지에 몰리고있으며 최악의 집권위기를 겪고있다. 보통 집권자의 입 말기기에나 나타나는 극도의

위기현상이 집권중반기에 나타나고있는것은 남조선력사상 처음이다. 최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리명박역도의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절반이나 떨어졌다. 주민들의 89%가 피뢰침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악정에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민심의 반영이라고 하는 인터넷게시판에는 《민중의 주적 리명박을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글까지 오르고있다. 리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북남대결정책은 민심의 강력한 규탄배격을 받고있으며 피뢰침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여지없이 파탄되고있다. 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북남관계파탄책동과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대중적인 항거는 독재 《정권》의 기반을 밑부리쳐 뒤흔들여놓고있으며 역적패당은 파멸의 나락으로 걸잡을수 없이 빠져들고있다. 결국 합선침몰사건조작으로 우리를 해치려던 피뢰침들은 지금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지는 꼴이 되고말았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대세의 흐름과 민심을 외면한 정청은 폐의일이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으며 그를 주도한 독재자들은 인민의 저주와 규탄속에 력사의 무덤에 처박힌 채 하였다. 리명박패당도 결코 달리 될수 없다.

6. 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 사회의 반공화국모략적인 합선침몰사건을 조장하고 북남판계를 전면파탄으로 몰아넣은 리명박패당은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뒤흔들고 합선침몰사건을 조장하고 동족을 모해살상하기 위해 무조건 파멸시킨 남조선, 모략극이다. 역대 남조선의 친미사대대국노들이 일인적 동족대결소동이 그 어느것이나 다 그러하였지만 리명박패당이 조장한 이번 모략사건은 그 악랄성과 교활성, 집요성에 있어서 전례없는것이다. 피뢰침들은

패배자들의 구차스러운 낙두리

남조선보수패당이 《천안》호사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발표와 관련하여 체면을 세우려고도 이러저러거쯤 떠들어대고있다. 그들은 의장성명을 놓고 그 누구에게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보낸것이라니,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의 《천안》호공격을 규탄》하였다니 하고 거기에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해보려고도 모지름을 썼다. 그야말로 반공화국모략소동의 대참패로 궁지에 몰린자들의 변명이고 구차한 낙두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산이 들썩한 꼴에 쥐새끼 한마리라는 속담이 있다.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며 무슨 큰일이라도 췌치기 합선침몰사건을 유엔에 끌고갔던 남조선보수패당의 망동을 이에 비유할수 있다.

보수패당은 합선침몰사건이 발생하자 덩어 놓고 《북의 어뢰공격》으로 단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주변대국들과 기타 다른 나라들에 저들에 대한 《지적》과 《국제공조》를 적극 구걸하였다. 남조선당국의 합선침몰사건 국제화소동은 그 무는 《조사결과》라는것을 가지고 유엔에서 미일상정들과 함께 우리를 중상모해하는 《결의안》을 꾸며내기 위한 망동으로 정점에 달하였다. 하지만 그 《조사결과》라는것은 이미 저들이 규정한 《북의 어뢰공격》설을 틈잡기 위해 강자와 억지로 짜맞춘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남조선인민으로부터 하여 남조선내부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평대와 비난만을 초래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도 남조선당국의 《조사결과》에 동의할수 없다는 견해들이 나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특출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한것은 당면한 구절이다. 결국 외세를 뒤흔들고 합선침몰사건을

국제화하여 우리를 해쳐보려던 보수패당의 기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은 세계면전에서 개교양신만 당하였다. 사실상 그들로서는 유엔에 합선침몰사건을 상정안한것만 못하게 되었다. 이런것을 놓고 남잡이가 제잡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아무런 과학성도 없는 모순투성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서둘러 사건을 유엔에 끌고간자세가 잘못이었다고 하면서 《〈천안〉호의외의 실체》, 《국제적망신》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바빠맞은 보수패당은 본전이라도 찾을 심산으로 의장성명내용을 자대로 해설하면서 저들이 그 무는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있는듯이 요설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하지만 그런 공방한 높음으로 민심을 오도하기에는 여론의 눈이 너무도 밝다.

보수패당이 그러위 구차한 변명으로 저들의 엄청난 죄행을 가려워보려는것은 오산도 이만저만한 오산이 아니다. 건전한 리성과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은 애초부터 피뢰침들의 반공화국모략적인 진상을 경구로 꿰뚫어보고있었다. 남조선당국은 변명으로는 궁지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남조선당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의장성명도 나온만큼 이제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리석은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을 접어치우고 우리 국방위원을 검열단을 받아들이며 사건에 대한 북남공동조사에 성근히 응해야 한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의 다른 길이 없다.

최철순

역적패당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재증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차상보 재증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최근 《리명박역적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투쟁에 총력기해나서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리명박역적패당이 피뢰침본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남조선의 진보전대와 원회사무실들, 단체핵심성원들의 집을 강제수색하고 소속성원들을 체포수색하는 파쇼적폭행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북남공동선언리행과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이방관적인 탄압소동은 민심을 잃고 막다른 궁지에 빠진자들

이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최후발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재증조선인들은 남조선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역적패당의 파쇼적탄압책동을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로물적인 부정은 6. 15 지시체력을 말살하기 위한 파쇼적폭거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벌히 단죄규탄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자들은 다름아닌 친미사대와 민족대결을 일삼는 리명박역적패당이다.

역적패당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6. 15 지시체력에 대한 탄압책동에 계속 매달리던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명박패당은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리적》규정을 당장 철회하고 정당하게 제3국중립진보대성원들을 즉시 석방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체 재증조선인들은 반미자주화, 반리명박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연합해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며 친미사대, 반민일대결에 환장한 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이다.

조선 평화옹호전국 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피뢰침조작자들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대웅조지》로 들고나왔던 미국과의 해상면합훈련을 7월초에 강행하며 년말까지 《술사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연습과 대잠수함훈련 등 10여차례의 전쟁연습을 중시동태와 서해, 남해에서 지속적으로 벌일것이라고 떠벌이고있다.

피뢰침패당과 미국조작자들의 대우모해상면합훈련 강행책동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피뢰침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상에서 벌려대고 하는 대우모해상면합훈련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망동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로 락인하면서 이를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이름으로 준벌히 규탄한다.

국 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남조선피뢰침과 미국이 해상면합훈련의 구실로 내놓고있는 합선침몰사건은 이미 그 모략적정세에 만천하에 드러나 내외여론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피뢰침패당은 반공화국모략패대적인 합선침몰사건을 유엔에 끌고갔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인정은커녕 망신만 특특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합선침몰사건을 겹고 련합훈련이니 뭐니 하며 전쟁연습을 노린 극히 위험천만한 음모였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실증해 주었다.

역적패당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벌려대던 대우모해상면합훈련이 이제 대규모탄핵사태로 번져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미국이 《무력시위》니 뭐니 하고 가스통째로 떠들지만 그에

대결모략소동과 《제재》책동에 계속 매달려보려는 극히 무모한 도발적망동으로서 국제로 용납될수 없다.

작전반경이 1000km에 달한다는 미해상공포합을 조선선제로 들이밀던 조선동해에 투입하는 그 침략책동에 해성에서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 사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는 미국과 피뢰침패당이며 이번 모략사건이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극히 위험천만한 음모였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실증해 주었다.

미국과 리명박패당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전쟁연습책동을 당장 접어치워야 한다.

주제 99 (2010)년 7월 16일 평양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을 규탄

공안당국이 그가 범적학원 납속본부 이전 의장 윤기진의 글을 후원회사이트에 게재한것과 단체의 활동을 문세삼아 이러한 폭거를 가하였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리명박 《정권》이 2008년 윤기진을 강제리행한 때에도 《통일청춘》 회원들까지 소환조사하고 제3국금하였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이 진보전대, 참여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을 규탄

공안당국이 그가 범적학원 납속본부 이전 의장 윤기진의 글을 후원회사이트에 게재한것과 단체의 활동을 문세삼아 이러한 폭거를 가하였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리명박 《정권》이 2008년 윤기진을 강제리행한 때에도 《통일청춘》 회원들까지 소환조사하고 제3국금하였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이 진보전대, 참여

남조선의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잠수기술공사 대표 리종인이 13일 《천안》호 침몰사건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조사결과》 발표직후 인천앞바다에 물어두었던 가열식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을 50일만에 전져하여 이날 공개하였다. 결과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이 모두 《합동조사단》이 《결정적증거》로 내세웠던 《1번어뢰》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불수강이 침몰시켜졌던 알루미니움은

《결정적증거》의 허황성을 증명하는 실험결과 공개

남조선의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잠수기술공사 대표 리종인이 13일 《천안》호 침몰사건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조사결과》 발표직후 인천앞바다에 물어두었던 가열식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을 50일만에 전져하여 이날 공개하였다. 결과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이 모두 《합동조사단》이 《결정적증거》로 내세웠던 《1번어뢰》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불수강이 침몰시켜졌던 알루미니움은

《결정적증거》의 허황성을 증명하는 실험결과 공개

남조선의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잠수기술공사 대표 리종인이 13일 《천안》호 침몰사건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조사결과》 발표직후 인천앞바다에 물어두었던 가열식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을 50일만에 전져하여 이날 공개하였다. 결과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이 모두 《합동조사단》이 《결정적증거》로 내세웠던 《1번어뢰》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불수강이 침몰시켜졌던 알루미니움은



당국의 《4 대강경비》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합선침몰사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주장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12일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추가조사를 주장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를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

대화와 협상을 제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장려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의장성명을 발표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는 《통일부》안에서 선언이라는 말조차 입밖에서 꺼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런 《정권》에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면개악하였다.

현인택은 명색이 《통일부》장관인데도 불구하고 6. 15 공동선언발표기념행사를 한번도 주최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조직한 기념행사에 참가하는것도 보이도 못하였으며 남조선통일운동단체들이 북과 6. 15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것마저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이것은 현인택역적이 북남공동선언들을 얼마나 악의에 차 짓밟는 반통일본자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2) 반공화국대결정책의 고안자

현인택역적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인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을 조장하여 북남판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주범이다.

역도는 범적학원 《비핵, 개방, 3000》의 고안자 자기라는것을 자랑하듯이 내놓고 떠들어대다가 하면 《전략면》이라는것을 무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해왔다.

현인택은 《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하였지만 《북핵포기》를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개방, 개혁》을 부르짖었으며 북이 변해야 한다는 악담도 서슴없이 췌쳐냈다.

현인택역적은 《비핵, 개방, 3000》이 남조선인민들과는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게 되자 여기에 《상생, 공영》의 보자기를 씌워 계속 추진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3) 화해와 협력의 방해자

현인택역적은 6. 15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북남대화 화와 접촉, 교류, 협력사업을 가로막고 그에 차단봉을 내민 극악한 범적자이다.

현인택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대해 《관술적변화》, 《전쟁성결여》라고 헐뜯으며 《현직고수》의 미명하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접촉들을 모조리 파괴시켰다. 북남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 무는 《대북사대 4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전면 가로막았으며 금감산판공과 개성공업지구사업은 《피조기》니, 《돈줄》이니 하면서 중단과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난해 8월 우리 이태와 남조선 현대그룹사이에 이북련합회의 《민간금융회》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그 후 금감산판공과 개성지구판공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그 무는 《3대조건》을 내놓고 장태를 조성하다 못해 끝내는 결렬시킨 장본인도 다름아닌 현인택이다.

특히 현인택역적은 피뢰침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조장하고 동족을 모해살상하기 위해 무조건 파멸시킨 남조선, 모략극이다. 역대 남조선의 친미사대대국노들이 일인적 동족대결소동이 그 어느것이나 다 그러하였지만 리명박패당이 조장한 이번 모략사건은 그 악랄성과 교활성, 집요성에 있어서 전례없는것이다. 피뢰침들은

《결정적증거》의 허황성을 증명하는 실험결과 공개

남조선의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잠수기술공사 대표 리종인이 13일 《천안》호 침몰사건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조사결과》 발표직후 인천앞바다에 물어두었던 가열식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을 50일만에 전져하여 이날 공개하였다. 결과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이 모두 《합동조사단》이 《결정적증거》로 내세웠던 《1번어뢰》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불수강이 침몰시켜졌던 알루미니움은

《결정적증거》의 허황성을 증명하는 실험결과 공개

남조선의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잠수기술공사 대표 리종인이 13일 《천안》호 침몰사건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조사결과》 발표직후 인천앞바다에 물어두었던 가열식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을 50일만에 전져하여 이날 공개하였다. 결과 알루미니움과 불수강, 철조각이 모두 《합동조사단》이 《결정적증거》로 내세웠던 《1번어뢰》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불수강이 침몰시켜졌던 알루미니움은

극악한 반통일역적의 죄상을 단죄한다

피뢰침일부 장관 현인택이 1차적인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은 뻔뻔스럽게 머리를 계속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서기장은 온 민족과 함께 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현인택역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회행록을 발표한다.

2) 반공화국대결정책의 고안자

현인택역적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인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을 조장하여 북남판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주범이다.

역도는 범적학원 《비핵, 개방, 3000》의 고안자 자기라는것을 자랑하듯이 내놓고 떠들어대다가 하면 《전략면》이라는것을 무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해왔다.

현인택은 《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하였지만 《북핵포기》를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개방, 개혁》을 부르짖었으며 북이 변해야 한다는 악담도 서슴없이 췌쳐냈다.

현인택역적은 《비핵, 개방, 3000》이 남조선인민들과는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게 되자 여기에 《상생, 공영》의 보자기를 씌워 계속 추진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3) 화해와 협력의 방해자

현인택역적은 6. 15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북남대화 화와 접촉, 교류, 협력사업을 가로막고 그에 차단봉을 내민 극악한 범적자이다.

현인택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대해 《관술적변화》, 《전쟁성결여》라고 헐뜯으며 《현직고수》의 미명하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접촉들을 모조리 파괴시켰다. 북남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 무는 《대북사대 4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전면 가로막았으며 금감산판공과 개성공업지구사업은 《피조기》니, 《돈줄》이니 하면서 중단과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난해 8월 우리 이태와 남조선 현대그룹사이에 이북련합회의 《민간금융회》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그 후 금감산판공과 개성지구판공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그 무는 《3대조건》을 내놓고 장태를 조성하다 못해 끝내는 결렬시킨 장본인도 다름아닌 현인택이다.

특히 현인택역적은 피뢰침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조장하고 동족을 모해살상하기 위해 무조건 파멸시킨 남조선, 모략극이다. 역대 남조선의 친미사대대국노들이 일인적 동족대결소동이 그 어느것이나 다 그러하였지만 리명박패당이 조장한 이번 모략사건은 그 악랄성과 교활성, 집요성에 있어서 전례없는것이다. 피뢰침들은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고안해내어 북남판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현인택은 그 죄행만으로도 통치적책임을 할 천수에 용납 못할 증범이다.

3) 화해와 협력의 방해자

현인택역적은 6. 15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북남대화 화와 접촉, 교류, 협력사업을 가로막고 그에 차단봉을 내민 극악한 범적자이다.

현인택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대해 《관술적변화》, 《전쟁성결여》라고 헐뜯으며 《현직고수》의 미명하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접촉들을 모조리 파괴시켰다. 북남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 무는 《대북사대 4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전면 가로막았으며 금감산판공과 개성공업지구사업은 《피조기》니, 《돈줄》이니 하면서 중단과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난해 8월 우리 이태와 남조선 현대그룹사이에 이북련합회의 《민간금융회》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그 후 금감산판공과 개성지구판공계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그 무는 《3대조건》을 내놓고 장태를 조성하다 못해 끝내는 결렬시킨 장본인도 다름아닌 현인택이다.

특히 현인택역적은 피뢰침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조장하고 동족을 모해살상하기 위해 무조건 파멸시킨 남조선, 모략극이다. 역대 남조선의 친미사대대국노들이 일인적 동족대결소동이 그 어느것이나 다 그러하였지만 리명박패당이 조장한 이번 모략사건은 그 악랄성과 교활성, 집요성에 있어서 전례없는것이다. 피뢰침들은

극악한 반통일역적의 죄상을 단죄한다

피뢰침일부 장관 현인택이 1차적인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은 뻔뻔스럽게 머리를 계속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서기장은 온 민족과 함께 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현인택역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회행록을 발표한다.

극악한 반통일역적의 죄상을 단죄한다

피뢰침일부 장관 현인택이 1차적인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은 뻔뻔스럽게 머리를 계속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서기장은 온 민족과 함께 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현인택역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회행록을 발표한다.

극악한 반통일역적의 죄상을 단죄한다

피뢰침일부 장관 현인택이 1차적인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은 뻔뻔스럽게 머리를 계속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서기장은 온 민족과 함께 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현인택역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회행록을 발표한다.

1) 북남공동선언의 유린, 파괴자

현인택역적은 6. 15 공동선언을 가장 큰 죄악적인 북남선언들을 무함히 유린, 파괴하였다.

현인택은 피뢰침일부 장관파리에 들어있자마자 《국회》청문회에서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국회의 비준을 받은 문건이 아니다》, 《리행할 의무가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북남선언들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역도는 이미 2007년 10월은 민족과 전세계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10. 4 선언을 한결같이 지지, 현행하고있을 때 《반쪽짜리 회담》 《실효성이 없다》,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등으로 찬물을

1) 북남공동선언의 유린, 파괴자

현인택역적은 6. 15 공동선언을 가장 큰 죄악적인 북남선언들을 무함히 유린, 파괴하였다.

현인택은 피뢰침일부 장관파리에 들어있자마자 《국회》청문회에서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국회의 비준을 받은 문건이 아니다》, 《리행할 의무가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북남선언들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역도는 이미 2007년 10월은 민족과 전세계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10. 4 선언을 한결같이 지지, 현행하고있을 때 《반쪽짜리 회담》 《실효성이 없다》,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등으로 찬물을

극악한 반통일역적의 죄상을 단죄한다

피뢰침일부 장관 현인택이 1차적인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은 뻔뻔스럽게 머리를 계속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서기장은 온 민족과 함께 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현인택역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회행록을 발표한다.

극악한 반통일역적의 죄상을 단죄한다

피뢰침일부 장관 현인택이 1차적인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은 뻔뻔스럽게 머리를 계속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서기장은 온 민족과 함께 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현인택역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회행록을 발표한다.

극악한 반통일역적의 죄상을 단죄한다

피뢰침일부 장관 현인택이 1차적인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은 뻔뻔스럽게 머리를 계속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서기장은 온 민족과 함께 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현인택역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회행록을 발표한다.

극악한 반통일역적의 죄상을 단죄한다

피뢰침일부 장관 현인택이 1차적인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은 뻔뻔스럽게 머리를 계속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서기장은 온 민족과 함께 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현인택역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회행록을 발표한다.

극악한 반통일역적의 죄상을 단죄한다

피뢰침일부 장관 현인택이 1차적인 규탄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은 뻔뻔스럽게 머리를 계속 쳐들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서기장은 온 민족과 함께 서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현인택역적의 반통일적, 반민족적죄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회행록을 발표한다.

